

K콘텐츠가 위험하다...드라마 '차이나머니' 역풍

세계 엔터테인먼트계 큰 손된 '중국 자본'

중국, 베끼기만?...콘텐츠 질적 수준 높아져

방송 2회 만에 폐지된 SBS TV '조선구마사'의 논란은 국내 엔터테인먼트가 차이나머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SBS와 '조선구마사' 제작사들은 "중국 자본이 투입된 드라마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계욱 작가와 신경수PD도 "의도적으로 역사왜곡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발맞춘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도,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중국에 선보여도 이질감이 없도록, 한국 창작진이 스스로 중국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낸 것처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구마사'에는 중국식 만두와 월병 등 음식을 비롯해 무녀 의상, 배경 음악, 인테리어나 모두 중국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중국인들이 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요소들이다. 처음부터 중국 시장을 노렸다는 증거다.

중국 광고주 등의 영향으로 작품이 산으로 가면서, 혹평을 받았다. 특히 '트랜스포머4'는 후원사였던 중국 최고급 호텔인 판구다관 측이 계약했던 조건과 영화 속 이미지가 다르다며, 호텔이 등장하는 장면을 모두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 개봉이 무산될 뻔했다. 특히 지난해 개봉한 디즈니 영화 '물랑'은 중국 입김의 정점에 있었던 영화로 평가 받는다. 디즈니는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공안국에 감사를 표했다. 그런데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인권을 탄압한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그러자 온라인에는 디즈니가 차이나머니 등을 이유로 중국 국적을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에서는 할리우드에 중국 자본이 계속 투입되면, 할리우드가 중국의 정치적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는 선전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SBS TV '별에서 온 그대'의 중화권 열풍에 힘 입어 주연 배우인 전지현·김수현이 중국 생수 모델로 발탁된 적이 있는데, 원산지인 백두산을 창바이산(장백산)으로 표기해 갑론을박이 따른 바 있다. 장백산이라는 표기는 중국의 동북공정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최근 tvN 드라마 '여신강림' 속 중국 기업의 과도한 PPL과 중국산 인스턴트 쿠키, tvN '빈센조'의 중국 브랜드 비빔밥 제품 등은 중국 자본의 한국 드라마 잠식론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최근 드라마 회당 평균 제작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국 자본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작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이다. 하지만, 중국 자본은 '독이 든 성배'에 비유된다. 판타지오, 하이브라더스코리아, 웰메이드 에담 등이 중국 자본을 유치해주며 받았지만, 이후 운영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중국 일부 아이돌들은 K팝을 악용하기도 한다. K팝 아이돌 그룹 활동으로 인지도를 쌓은 뒤 맛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독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세계 엔터테인먼트계 큰 손된 '차이나머니'

막대한 자본력과 소비 인구가 엔터테인먼트계 큰손이 된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막대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인 할리우드가 중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트랜스포머4', '공: 스텝 아일랜드', '피사피립: 업라이징' 같은 중국 자본이 투입된 영화는

K콘텐츠도 안전하지 않다...드라마부터 침범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K콘텐츠도 안전하지 않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잘 활용하면, 좋은 선전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드라마와 드라마메이커부터 서서히 침범해왔다.

중국, 베끼기만?...콘텐츠 질적 수준 높아져

더 우려되는 지점은, 중국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 갈수록 탄탄해진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콘텐츠는 한국을 베낀다는 인상이 강했다. 자체 콘텐츠는 어색하거나 촌스럽다는 평도 많았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력으로 한국에선 시도할 수 없는 대형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중



국판 넷플릭스로 불리는 아이치이(iQIYI)는 막강한 배급력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아직은 많지 않지만, 국내에서 중국 드라마(중드) 팬덤도 생기기 시작했다. '미미일소흔경성' '누나의 첫사랑' 같은 중드가 인기다. 아울러 국내 OTT도 중국 드라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 대형 드라마에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면서, K 콘텐츠 시장이 중국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행인 건, K-콘텐츠 창작자들이 중국 자본을 무조건 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쇼미더머니', '언프리티 랩스타',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성공

시킨 한동철 전 넷플 PD는 최근 중국 투자사로부터 100억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방향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중국 자본이 무서운 기세로 K-콘텐츠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잠식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지금이 중요한 때다. 중국 자본이 매력적이지만, 우리 문화를 스스로 깰아가면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 콘텐츠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중국 자본을 영리하게 활용하며 취사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 수급처를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각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복', 공유·박보검 캐릭터 포스터 공개

감성 브로맨스... '기대감 고조'

극장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시 개봉을 결정한 공유·박보검 주연 영화 '서복'이 5인 5색 캐릭터 포스터를 29일 공개했다.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인간 '서복'(박보검 분)을 극비리에 옮기는 생애 마지막 임무를 맡게 된 정보국 요원 '기현'(공유)이 '서복'을 노리는 여러 세력의 추적 속에서 특별한 동행을 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다. 먼저 생애 마지막 임무를 맡아 '서복'과 뜻밖의 동행을 하게 된 전직 정보국 요원 '기현'(공유). "서복과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카피와 함께 슬픈 눈빛으로 흥을 겨누고 있는 그의 모습은 두 남자가 선보일 감성 브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서복'은 다음 달 15일 극장과 티빙을 통해 속내를 알 수 없는 표정의 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 '서복'(박보검)은 "전 갈 곳이 없어요"라는 카피를 통해 알 수 있듯 평생을 연구소에서만 살아온 존재로, '기현'과 함께 진짜 세상을 마주하게 된 그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서복'의 존재를 영원히 은폐하려는 정보국 요원 '안부장'(조우진)은 "외부에 알려지면 다 끝장입니다"라는 카피처럼 '기현'과 '서복'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여기에 '서복'의 탄생과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서인그룹의 책임 연구원 '임세은'(장영남)과 '서복'의 소유권을 가진 서인그룹의 대표 이사 '신학선'(박병은)이 '서복'을 둘러싸고 각자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각양각색 인물들을 보여준다. '서복'은 다음 달 15일 극장과 티빙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송희준, 반려견 파양 사과... "옆집 개와 아버지 암 투병 때문"

반려견 파양 논란에 휩싸인 배우 송희준이 이를 인정했다. 송희준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두 달째 전에 옆집이 진돗개를 분양했고, 그 개의 기척에 모네가 밥도 먹지 못 하고 심지어 토를 하기도 할 만큼 스트레스가 심해 부모님이 대신 말아주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상태가 최근 악화됐고, 이 때문에 병원의 입·통원이 찾아지면서 어머니의 지인이 모네를 돌봐주다 입양해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입양처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지만, 입양처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모네를 다시 데려갔다"고 해명했다. 송희준은 "제 미숙한 결정으로 모네를 떠나보내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모네에게 너무 미안하고, 입양처에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송희준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송희준입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두 달 전쯤 마당과 벽을 공유하는 옆집에 어린 진돗개가 분양되어 왔습니다. 모네는 그 개의 기척이 느껴지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짖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밥도 먹지 않고 그나마 먹은 것은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셨고 저는 이사가 방법이라고 생각해 새 집을 구하는 동안 모네는 본가의 부모님이 말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본가에서 모네는 다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컨디션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

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원하시는 일이 잦아져 매일 어머니가 모네와 산책할 때 함께 가시던 같은 아파트의 어머니 친구분께서 부모님의 입원원시 모네를 함께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그 분이 모네를 맡아 키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건강 상태를 보며 부모님과 집을 합쳐야 할 상황이 고려해야 했기에 입양처에 모네가 저를 떠나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입양처에 이런 저의 상황을 공유하고 모네를 돌봐주시기로 한 분이 입양 심사를 받고 싶어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네를 데려가셨습니다. 제 미숙한 결정으로 모네를 떠나보내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네에게 너무 미안하고, 입양처에도 죄송합니다.

송승현-이하나, OCN '보이스4' 주인공...6월 방송

시즌4,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 저지르는 살인마 등장



배우 송승현과 이하나가 OCN '보이스4' 심판의 시간'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보이스' 시리즈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

을 그린 스틸러극이다. 시즌4에는 초청력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살인마가 등장한다.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범죄자로 인해 공지에 물린 보이스 프로파일러와 타협을 불허하는 원칙주의 행사의 공조를 박진감 있게 그려 예정이다. 송승현은 미국 LAPD(로스앤젤레스 경찰) 경 전담 팀장이자 골든타입팀 협력 형사인 데릭조를 연기한다.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원칙주의 형사다. 이하는 전 시즌에서 보이스 프로파일러 강권주를 연기해왔다. 2번째 파트너 도강우 사망 이후 깊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지만 끝까지 고통을 견디며 리더의 자리를 공고히 한 인물이다. 제작진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송승현, 이하나의 새로운 골든타입 공조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주말극으로 편성되며 6월 처음 방송한다.

버벌진트, 6년 만의 정규앨범 '변곡점'

다음달 6일 공개

래퍼 버벌진트가 6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매한다. 29일 소속사 아더사이드에 따르면, 버벌진트는 오는 4월6일 오후 6시 일곱 번째 정규 앨범 '변곡점'을 공개한다. 버벌진트의 정규 앨범 발매는 2015년 공개된 '고 하드 파트1(GO HARD Part1) : 양가치' 이후 처음이다. 타이틀곡 '공인'은 범대중적으로 쓰이는 '공인'이란 단어에 관한 통찰을 담

은 곡이다. 래퍼 스윙스가 피쳐링을 했다. '공인'의 뮤직비디오 연출은 '좋아보여' 등 버벌진트의 대표곡 뮤직비디오를 작업한 MJJ 문승재 감독이 맡는다. 아더사이드는 "이번 앨범은 버벌진트가 전곡 작사, 작곡, 편곡에 집요하리만치 집중해 그만의 다채롭고 고유한 음악성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소개했다. 이번 버벌진트 앨범의 피지컬 음반은 소량 한정으로 제작된다. 굿즈와 함께 판매될 예정이다.

더보이즈 선우, '학폭 의혹' 벗었다... "게시자, 허위 글 인정"

그룹 '더보이즈' 선우가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벗었다. 소속사 크레켄터테인먼트는 29일 팬카페를 통해 "선우의 허위 사실 유포 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및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유포된 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당사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확인 요청에, 최초 게시자는 학교 폭력 및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자신이 게재한 글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었음을 인정했다"

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글을 게시함으로써 일어난 파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글을 작성한 점, 모두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과문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전했다.